

SANZEN-IN TEMPLE

一隅を照らす



豆屋 오하라

三산代院

절



어전문



주인의 종류외 접수 장소
 주인
 금색 부동명왕/변재천
 주인
 관음보살

 주인
 약사여래/아미타 삼존(기타 모든 주인을 담당합니다)

●참배 시간 3월~12월 7일: 8:3017:30접수종료시간 17:00 12월 8일~2월: 9:0017:00접수종료시간 16:30

산젠인 문작가무소

(우)601-12설2토시 사쿄구 오하라라이코인초 540 TEL (075)744-2531 FAX (075)744-2480 URL http://www.sanzenin.or.jp



아미타 삼존상(국보)

오하라 일대는 약 천년 전부터 교잔(魚山)이라 불리며 불교 음악(성명 (聲明)의 발상지였고 염불 성인에 의한 정토 신앙의 성지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창건은 사이초(最澄) 고승(시호: 덴교(傳教) 대사, 767~822)이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姬寺)를 건립할 때 초암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명 가지이 몬제키(梶井門跡), 나시모토 몬제키(梨 本門跡)이라고도 불리는 천태종 5대 문적 중 하나로, 이곳은 황자나 황족이 주지를 맡는 궁 문적이었습니다. 현재의 명칭은 1871년 법친왕(法親王, 황자로서 출가 후에 친왕으로 봉함을 받은 사람)의 환속과 함께 가지이 어전(梶井御殿) 안의 지불당(持佛堂)에 모셨던 레이겐(霊元) 천황 친필 칙액(勅額)에서 유래한 산젠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의 왕생극락워

금색 부동당(不動堂)/관음당

수국원 내의 금색 부동당은 치쇼(智証) 대사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비불 금색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하는 1989년에 건립된 기원을 위한 근본 도량입니다. 그리고 관음당에는 신장 3m의 입상 관음을 모셨습니다. 관음당 주위에는 기원이 이루어진 분들이 소관음상을 안치하였고 관음당 옆에는 보타락 정토(補陀落浄土)를 재현한 지겐노니와(뜰)를 배치하였습니다.

엔뉴조(円融蔵)

2006년 가을 개관한 중요문화재 수장 시설로 전시실을 갖추었습니다. 천장에는 왕생극락원의 선저형 천장화를 복원 모사하였고 또한 소장 중요문화재를 전람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관음당



금색 부동당(不動堂)



복위 모사 왕생극락위 선저형 천장화(엔뉴조 내)

슈헤키엔(聚碧園)/유세이엔(循園)

슈헤키엔은 객전쪽의 지천(池泉, 정원에 판 연못) 관상식 정원으로 에도 시대의 다인 가나모리 소와(金森宗和)가 수축하였다고 합니다.

본당인 신덴(宸殿)쪽 극락원을 바라보는 유세이엔은 중국 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사령운(謝靈運)의 '산수청음유(山水精音有)' 로부터 명명된 지천 회유식 정원입니다. 삼나무들 안 이끼의 대평원과 단풍이 유명합니다.

신덴(宸殿)/객전(客殿)

신덴은 고시라카와 법황(後白河法皇)이 시작한 궁중 오센(御懺, 회개) 법강(法講)(성명(聲明)에 의한 법요)을 지금에 전하는 도량입니다. 본존은 덴교(傳教) 대사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비불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 如来)입니다. 또한 서쪽 칸에는 역대 주지(법친왕(法親王, 황자로서 출가 후에 친왕으로 봉함을 받은 사람))의 내불을 모셨습니다. 동쪽 칸에는 옥좌를 만들었고 맹장지에는 시모무라 간잔(下村観山)이 무지개를 그려 니지노마(무지개 칸)이라고도 불립니다.

객전은 헤이안 시대에 류젠인(龍禅院)이라 불렸던 다이겐지(大原寺)의 만도코로(政所, 영유지의 사무나 관리 등을 취급하던 곳)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궁궐을 수복하고 남은 재목으로 수축하였습니다.



봄의 왕생극락원

왕생극락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절은 986년에 『왕생요집(往生要 集)』의 저자로 천태정토교의 대성자인 에신소즈 應心僧都) 겐신(源信)이 부모의 보리를 위해 누님 안요니(安養尼)와 함께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불당에 비해 큰 '아미타 삼존상' (국보)를 안치하기 위해 천장을 선저형으로 접어 올렸습니다. 현재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천장에는 극락정토에서 춤추는 천녀나 제반 보살님 모습이 극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2006년 가을 개관한 중요문화재 수장 시설 '엔뉴조(円融蔵)'의 전시실에 복원 모사되어 창건 당시의 극락정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중존 아미타여래는 내영인(来迎印)을 취하고 있고 오른쪽 관세음보살은 왕생하는 사람을 연대에 태우는 모습, 왼쪽 세지보살은 합장하는 모습입니다. 양쪽 보살 모두 상반신을 앞으로 조금 구부려 무릎을 꿇은 '정좌' 이며 자비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